

『조선불교총보』의 전개 양상과 시론(時論)의 지향성

김종진*

• 목 차 •

- I. 머리말
- II. 발행 기관과 관련 포교단체의 변천
- III. 발행의 주체와 편집 방침
- IV. 시론의 지향과 특징
- V. 잡지의 위상과 의의 - 결론을 대신하여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교수.

© 『大覺思想』 제35집 (2021년 6월), pp.161-189.

한글요약

『조선불교총보(朝鮮佛敎叢報)』(총22호, 1917.3~1921.1)는 삼십본산연합사무소에서 발행한 기관지로, 3.1운동 직전에 종간한 만해의 『유심』을 제외하면, 3.1운동 전후에 걸쳐 간행된 유일한 불교계 잡지다. 이 잡지는 친일인사들이 포진한 불교옹호회(佛敎擁護會)와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으며 출발했으나, 잡지의 후반기에 당시 신진 불교 지식인이 다수 포함된 조선불교회(朝鮮佛敎會)와 불교청년회(佛敎靑年會) 소식에 지면을 할애하면서 새로운 불교운동의 모태가 된 점은 특기할 만하다. 여기에는 3.1운동 이후 불교계에서 자생한 문화적 실천운동의 움직임이 잡지를 통해 표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선불교총보』는 기본적으로 이능화를 중심으로 한 불교 지성인들의 학술 연구 결과가 축적된 학술적 교양 잡지다. 본고는, 학술적 성과를 고찰하기 전에, 이 잡지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서 잡지의 지향성을 시론(時論)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시론에는 잡지 발행인과 연합사무소 위원장의 정치 행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 여기에 담긴 그들의 보수적이고 반동적 목소리는 잡지 자체의 구성과 문체의 보수성으로 이어진다. 이는 이능화의 보수적인 문화 인식, 감각의 한계이며, 시대의 억압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조선불교총보』에는 그 시대의 불교학을 바라보는 중앙학림 교수 박한영과 일본 유학생들의 상이한 시각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김정해 등 신진 유학생들은 종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고 총독부가 제정한 사찰령(寺刹令)에 근거한 삼십본산(三十本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불교총보』의 후반기에는 일본에서 귀국한 불교유학생의 목소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조선불교총보』는 1917~1921년 사이 한국의 불교계가 처한 시대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텍스트라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불교잡지, 근대불교, 조선불교총보, 불교옹호회, 조선불교회, 불교청년회, 이능화, 박한영, 김정해

I. 머리말

『조선불교총보』는 사찰령 제도 하에 선출된 30본산 주지의 연합체인 삼십본산 연합사무소(三十本山聯合事務所)에서 발행한 기관지다.¹⁾ 1917년 3월 창간하여 1921년 1월까지 총 22호를 간행하였고²⁾, 편집 겸 발행인은 이능화, 발행소는 각 황사 내에 있는 삼십본산연합사무소(경성부 수송동 82번지)이다.

『조선불교총보』는 삼십본산연합사무소의 기관지로서 사찰령 체제 하 불교계의 제반 활동양상을 소개하였다. 「관보」란에는 총독부 지침, 총독부 관리의 종교 관여 내용, 사찰령과 시행세칙에 따른 주지 임면, 재산 처분 등 일체의 종교정책이 구현되는 세세한 실상을 소개하였고, 「회보」란에는 연합사무소의 제반 활동, 포교와 교육 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여 불교계 여론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불교총보』는 1917년부터 1921년까지 3.1운동을 전후로 간행된 유일한 근대불교잡지로서, 근대 불교사, 교단사 연구에 소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어려운 제약 속에서 민족문화를 발굴하고 당대의 불교를 혁신하고자 한 여러 불교지성의 노력이 22호라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분량으로 축적되어 있다. 이들 선대 지성들의 문화 창조에 대한 의지와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이 유다.

근대불교잡지로서 『조선불교총보』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김광식(1996a)³⁾은 불교잡지 영인본과 해제집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고, 김성연(2016)⁴⁾

1) 삼십본산연합사무소는 일제의 종교정책에 따라 사찰령이 제정된 후 1915년 1월에 구성된 30본산의 주지 연합체이다. 연합사무소의 기관지로서 간행된 잡지는 총보 이전에 『불교진흥회월보』(총9호, 1915.3~12)와 『조선불교계』(총3호, 1916.4~6)가 있다. 삼십본산연합사무소는 1922년에 삼십본산선교양종총무원(三十本山禪教兩宗總務院)으로 대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2) 잡지는 1917년에는 7회(1-7호), 1918년에는 6회(8-13호), 1919년에는 5회(14-18호), 1920년에는 3회(19-21호)로 줄어들다가 결국 1921년 1월(22호)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인쇄소는 東一 인쇄소(1호), 誠文社(2-4호), 新文館(5-22호)이다.

3) 김광식,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해제』, 민족사, 1996, pp.25-26.

4) 김성연은 “당대 불교지식인의 시대인식뿐만 아니라 사상적 일면을 고찰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지식창고”로서 1910년대 불교잡지를 규정하고 총보에 수록된 불교유학생들

과 윤기엽(2017)⁵⁾ 등은 총보와 관련하여 부분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⁶⁾ 아직 우리 학계에 『조선불교총보』라는 잡지 자체의 전개 과정과 수록한 다양한 글에 대한 분석적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잡지 창간 배경, 전개 과정, 다양한 논설에 대한 집중적인 독해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조선불교총보』의 전개 과정을 조사하고 논설의 지향을 살펴 암울한 시대에 불교지성들이 전개한 민족문화 창조의 지적 노정에 정당한 위상을 부여하고자 한다.⁷⁾

II. 발행 기관과 관련 포교단체의 변천

1. 발행기관과 관련 포교 단체 - 불교진흥회에서 불교옹호회로

1916년 6월 『조선불교계』가 폐간된 후 불교계는 별도의 포교잡지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삼십본산연합사무소가 출범한 이후 매년 1월에 주지들이 모여 연합사무소 위원장을 천거하고 임원을 선정하는 전통에 따라 1917년 1월 총회가 개최되었고, 제3기 위원장으로 통도사 주지 김구하를 선출하였다. 그리고 이때 폐간한 기관지도 새롭게 간행하기로 결의하였다.⁸⁾

의 시론을 언급하였다. (김성연, 「1910년대 불교 근대화론과 종교적 지평의 확대」, 『불교학연구』 48호, 불교학연구회, 2016.)

- 5) 윤기엽은 1925년에 출범한 친일불교단체인 조선불교단이 그 인적 구성에서 불교진흥회와 불교옹호회를 계승하고 있음을 밝혔다. 양 단체에서 주요 임원으로 활동한 이완용, 이윤용, 한창수, 권중현 등은 대표적인 친일인사로서 단체의 성격도 친일적 요소가 많다고 보았다. (윤기엽, 「일제강점기 조선불교단의 연원과 사적 변천-조선불교단 임원진의 구성과 이력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7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 6) 『조선불교총보』는 1910년대 근대불교사 연구의 주요 자료로서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 7) 본고는 『조선불교총보』에 대한 본격적 연구의 출발점으로 발행과 전개과정 및 논설의 지향성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1~22호 전체에 담긴 다양한 학술 성과와 문화 담론은 별도의 지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8) “靈山會上에 釋迦文佛이 敎說三乘訖니 將葉止啼는 非其本懷요 禪有一味訖니 拈花微笑는 是云別傳이라 蓬場作戲요 當家風流로다 從此心法이 轉轉傳授訖야 久經三千年訖고

당시 중앙학림 학장이던 김구하는 학장과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포교와 교육을 근대 종단의 최대 목표로 제시하였다.(가독성을 위해 일부 한자를 한글로 바꿈-필자.)

포교에 대하여는 往年에 佛教振興會를 경성에 설립하여 포교발전을 기도하던바 불행히 승속간에 의견이 충돌하여 불교는 依然히 不振不興하는 상태에 在함은 誰가 可惜타 안이하였사리오. 今者에 당국의 獎勵外護하는 命意을 承知하여 이백작(완용) 권자작(중현), 한남작(창수) 제 각하의 발기로 佛教擁護會의 認可를 受하여 경성 覺皇寺內(취소된 불교진흥회사사무소)에 설립하였사니, 장래에 삼십본산연합사무와 불교중앙학림과 乃至 지방 각처 各寺라도 援助를 及하며 편의를 與하게 될 줄로 拙窺은 確信하노라. 上方에 述한마와 如히 불교의 講學과 布教의 양 기관은 점차 완성되는 此時에 불교를 발전케함은 名盡其職함에 在하니 吾輩山人은 理務를 主掌하고 縉紳信士는 事務를 主掌하게 될지니 즉 俗間信士는 옹호자가 되고 山中法侶는 庇 옹호자가 되야 從此로 승속에 接觸機緣이 逐日增加할지로다. 승려는 승려의 본분을 守하고 신사는 신사의 의무를 盡하여 승려가 신사에게 대하여는 前日과 如히 遜行을 不改하고 신사가 승려에게 대하여는 舊習과 如히 下待는 決無할지니 此와 如히 一佛弟子 四部大衆이 和衷共濟하면 理事가 無碍하고 事事가 無碍하여 淸정한 법계를 朝鮮에 장엄할지로다.⁹⁾

김구하는 인용문에서 불교의 포교를 위해 연합사무소에서 설립한 불교옹호회는 기존의 불교진흥회를 대신하는 기관으로 소개하며 그 역할에 큰 기대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불교진흥회가 승속 간에 의견이 충돌하여 해체되고 불교옹호회를 대신 설립하였다는 현황을 밝히면서 앞으로는 ‘신사가 승려에게 대하는 구습과 같은 하대’는 결코 없으리라 하였다. 승려와 거사들이 여러 방면에서 서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내부 갈등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불교진흥회는 30본산의 주지들과 다양한 분야의 신망 있는 불교신도(거사)가 모인 승속연합체로서 『불교진흥회월보』의 발행 기관이다. 그러나 진흥회 핵심 임원인 이회광과 강대련 간의 갈등도 있었고 승속간의 조화도 매끄럽지 못하여

遠來二萬里 하니 其時曰 大正六年(1917) 一月이요 其處曰 朝鮮京城覺皇寺요 其人曰 禪教兩宗三十本山住持이니 荷擔如來하여 聯合判事할시 爰念付囑之遺意하여 共設機關之雜誌하니 三十菩薩은 說時默이오 淨名居士는 默時說이라 大施門開無擁塞하여 摩訶般若 若是其力이러라.” (상현(이능화), 『조선불교총보 발간사』 1호, p.1.)

9) 김구하, 「謹告諸方」, 2호, pp.2-3.

이후 거사들만의 단체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불교진흥회월보』가 중단되고 『조선불교계』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승속연합의 조직에서 승려 축이 무너지자 중앙기관인 연합사무소와의 연결 고리가 약화되었고, 잡지 발행의 동력도 상실하여 『조선불교계』는 3호로 종간하고 말았다. 그 결과 1916년 하반기 불교계는 포교잡지 없는 무기력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¹⁰⁾

이를 타개하는 방책으로 3기 삼십본산연합사무소 출범과 함께 등장한 포교단체가 바로 불교옹호회(佛敎擁護會)다. 이 단체는 불교진흥회의 주축을 이루던 ‘문장가, 철학자, 교육가, 수학자, 의학가’ 등의 거사가 다수 빠지고 친일 귀족이 대거 유입되었다. 불법과 승려를 ‘옹호’한다는 명분으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세력은 이완용, 권중현, 한창수 등 작위를 받은 친일 고위 인사들이다. 이들은 ‘질소권면(質素勸勉)의 풍(風)을 흥(興)하고 충량(忠良)한 신민(臣民)¹¹⁾이 되기를 기약하고자 불교옹호회의 설립을 출원하였고, 잡지가 창간되기 직전인 1917년 2월 21일에 인가를 받았다.¹²⁾

그러나 잡지와 관련하여 불교옹호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 같지는 않다. 2월에 인가받은 불교옹호회는 그해 10월에 제1회 역원회(임원회)가 개최될 정도로 활동이 소원했다. 잡지에 드러난 최초의 활동 기사는 다음과 같다.

今春부터 認可를 得하여 성립된 불교옹호회는 십월 삼일 오후 3시에 제1회 役員會를 각황교당내에 開하고 백작 이완용, 자작 조중응, 자작 권중현, 자작 조민희, 남작 박규대, 남작 이근상, 남작 한창수, 岡本 靑新국기사, 三島 鮮銀 이사, 藤波 통역관, 엄계익, 한상룡, 정병조, 남규희, 조영희, 이우경, 신우균, 유정수 등 重要한 諸氏가 出席하였고, 宇佐美 내무부장관도 참석하였는데 권자작의 식사와 이백작의 축사와 조자작의 연설과 내무부장관의 述會가 有한 후에 폐회하였스니 役員은 좌와 여 하더라.¹³⁾

10) 불교진흥회에서 발행한 『불교진흥회월보』에 대한 논의로 김종진(2021a, 2021b)을 참고할 수 있다.

11) 2호, p.52. 「회보」 『佛敎擁護會認可』 조.

12) “종래에 불교진흥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차에 노력하였으나 원만한 발전을 遂기 불능하였으므로 今般에 차를 폐지하고 更히 조선불교를 옹호하며 益益신앙적 수양을 積케하여 質素勸勉의 風을 興하고 忠良한 臣民이 됨을 期케하고자하여 백작 이완용, 자작 권중현, 남작 한창수의 제씨가 발기인이 되어 불교옹호회의 건설을 출원하였더니 2월 21일에 인가되었는데 사무소는 경성부 수송동 82번지 각황사로 하였더라.”(2호, p.52, 「회보」 『불교옹호회 인가』 조)

대부분 후작, 백작, 남작 등의 작위를 취득한 친일 정계 인사들이 고문으로 포진한 가운데 회주 권중현, 부회주 한창수, 평의원장 이완용이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평의원과 감사에는 일인과 조선인이 섞여 있다. 기존 『불교진흥회월보』부터 잡지 간행의 실무를 도맡았던 이능화는 이사로, 이능화의 활동을 보좌했던 양건식은 서기로 동참하였다. 기타 이명철은 중앙학림 교원이며, 성훈은 (호동)학교 교장으로 친불교적 지식인이다.

이처럼 불교옹호회는 불교홍법을 위해 삼십본산연합사무소에서 포교 기관으로 내세운 단체로서 총독부와 불교계의 연결 고리 역할을 자임하였다. 불교옹호회는 불교진흥회처럼 『조선불교총보』의 창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로 파악된다. 그러나 잡지 운영이나 내용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¹⁴⁾ 잡지와와의 연결고리는 의외로 발행인인 이능화 한 사람 정도를 들 수 있고, 옹호회의 홍보성 기사가 몇 차례 잡지에 소개되고 있으나¹⁵⁾, 옹호회 인사들이 잡지에 투고한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총독부와 연결된 정치적 행위로서 불교옹호회가 설립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조선불교총보』가 발행되었지만, 수록한 글의 성격은 민족문화를 탐구하는 자율적 성격의 글이 많아 불교옹호회와의

13) 제7호, pp.48-49, 「회보」 ‘擁護會役員會’ 조. △총재 △고문-후작 이재관, 후작 이해창, 후작 이해승, 후작 윤택영, 후작 박영효 (cf.이하 생략:필자. 작위자 총 26명, 무작위자 총 9명) △會主-자작 권중현 △부회주-남작 한창수 △평의원장-백작 이완용 △평의원-三島太郎, 岡本桂次郎, 藤波義貫, 白井友之助, 자작 이하영, 남작 민영기, 남작 이근상, 엄계익, 한상룡, 홍충현, 정병조, 신우균, 조동선, 이우경, 장홍식, 이명철, 성훈 △감사-三島太郎, 김상천, 김각현 △이사-이능화 △재무위원-이명철 △서기-양건식, 송현유.

14) 『조선불교총보』가 간행된 1917년은 불교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 일체의 행정력과 영향력이 좀 더 깊숙이 파고드는 시기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장 문학사 小田省吾를 중앙학림의 고문으로 천거하는 등(2호, 김구하, 「謹告諸方」) 교육 영역에서도 일체의 관여가 심화되었다. 총보 6, 7호에는 조선불교도의 일본 시찰단 소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이능화, 「内地에 佛教視察團을 送함」 6호, 「視察一束」 7호) 이러한 기사 외에는 대부분 학술 기사로서 종교성의 탐색이나 교단 운영의 개선방안으로 모색한 시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불교옹호회는 총보의 유관 포교단체이지만, 잡지 제작과 관련하여 양자 사이의 연결고리는 매우 약했다고 할 수 있다.

15) 불교옹호회 활동을 소개한 주요 기사는 稻田春水の 「佛教擁護會의 設立을 祝하고 併히 同會會員 諸君의게 望함」 4호, 강대련의 「佛教擁護會와 法侶의 覺悟」 4호 등이 있다.

관련성을 근거로 잡지가 이룩한 문화적 성과를 도외시킬 수는 없다.

2. 새로운 포교단체 태동에 기여 - 조선불교회, 조선불교청년회

1919년 3.1운동 이후 불교계 지식인의 집단적 자기표현의 욕구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잡지에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의 강고한 상황에서 균열과 교체의 조짐이 나타난 것은 삼십본산연합제도 활동에 대한 의구의 목소리와 제언이 잡지에 등장한 18호부터이다.

김정해의 「具體的인 聯合制度의 必要를 論함」(19호, 1920.1)에서는 연합의 실제적 성과가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각 본산에서 개별적으로 설립한 교육기관을 통합하여 연합교육기관을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덕유생의 「佛敎徒의 猛省 卽 今日」(21호, 1920.5)은 “오호라 불교의 대표인 삼십본산주지 제씨는 一思 卽 지어 다.”로 시작하여 사찰령 반포 십년간 도시에 교당을 설립한 것 이외에 얻은 성과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이러한 반성적 모색과 함께 잡지에는 조선불교회(朝鮮佛敎會)라는 새로운 조직의 태동에 관해 적극적으로 지면을 할애하였다. 조선불교회가 출범하고 취지서와 선전서가 등장한 것은 21호(1920.5)이며, 이능화 역시 이 단체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조선불교회는 친일 귀족이 주축이 된 불교옹호회와 거의 대립적인 위치에 있다. 연결고리가 약하기는 하지만 불교옹호회와 관련 있는 『조선불교총보』는 일종의 전혀 다른 성격의 포교단체의 설립을 적극 추동하는 역할을 자임하였다. 1920년 5월 21호 이후 휴간한 『조선불교총보』가 22호(1921.1)를 마지막으로 종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¹⁶⁾

발기인 일동의 <朝鮮佛敎會趣旨書>(21호)는 대정 9년(1920) 2월 17일 자로 작성되었다. 발기인은 이능화, 양건식을 비롯하여 고회동, 권덕규, 이훈성, 이지광, 정황진 등 총 29명이다.¹⁷⁾ 이능화, 양건식, 고회동, 권덕규 등은 불교진흥회 활동

16) 사실 종간호는 삼십본산연합사무소를 중앙종무원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방침과 잡지 발간을 종간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발간한 것으로 이해된다.

17) 전체 인원을 소개하면 김홍조, 김영진, 이능화, 고회동, 김돈희, 김영철, 김호병, 김용태, 김정해, 권덕규, 권순구, 양건식, 이우경, 이철상, 이운현, 이용기, 이명철, 이훈성, 이지광, 마상학, 박한영, 서병협, 윤기현, 오철호, 오봉원, 정황진, 최창선,

을 함께하던 문화 학술계 인사이며, 이훈성, 이지광, 정황진 등은 유학생 출신의 신진 인사들이다. 크게 보면 기존 불교진흥회 멤버에 유학생 그룹이 결합한 형국이다.

이어 3월에 작성한 <朝鮮佛敎會宣傳書>(21호)가 국한문과 한글 버전으로 나란히 수록되었다. 선전서에 부기된 <朝鮮佛敎會綱領>은 ‘조선의 불교를 발전’, ‘사회의 정신을 지도’, ‘습속의 허위를 개량’, ‘감화의 사업을 진작’, ‘오인의 생활을 향상’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¹⁸⁾ 주요 소식으로 21호 「회보」에는 ‘朝鮮佛敎會會規’와 ‘朝鮮佛敎會講演’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3월 27일 경성 단성사에서 개최한 조선불교회의 제1회 강연회 내용은 21호에, 2회는 22호에 전재되었다.¹⁹⁾

『조선불교총보』 중간호에는 조선불교회 외에도 불교청년회, 불교유학생회 소식에 지면을 할애하였다. 22호 중간호에는 <朝鮮佛敎青年會趣旨書>(1920.6.20) 및 발기인 명단이 소개되었고 「회보」에는 관련 소식이 다양하게 게재되었다.²⁰⁾ 이와 함께 아울러 일본에서 유학생들의 학우회 소식²¹⁾도 소개되었다. 중앙학림 주축의 조선불교청년회와 일본유학생 중심의 조선불교유학생학우회가 같은 시기에 결성된 것은 청년학생층이 형성되고 그들의 현실적 힘이 발현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예비하는 것이다.²²⁾

최용식, 홍우기 등이다.

- 18) 순한글 <조선불교회 선전서>는 ‘부인신도와 기타일반에 周知키 위’해 중첩 게재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국한문 원문을 직역한 것이 아니라 더욱 평이한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를 배려하였다. 기존 총보의 문체와 다른 새로운 시조이다.
- 19) 김명식, 「俗人의 佛敎觀」; 장도빈, 「古代의 朝鮮佛敎」. 제2회 강연은 6월 26일 통속강연회로 개최되었고 연사로는 도진호, 이운현이다. 도진호, 「佛陀의 精神과 現代青年」; 이운현, 「唯心」(22호, p.69; 「회보」, 「조선불교회 제2회강연」 조).
- 20) ‘조선불교청년회발기인회’(중앙학림, 6.6). ‘불교청년회의 위원회’(중앙학림, 6.9). ‘불교청년회의 창립총회’(각황사, 6.20). ‘조선불교청년회의 순회강연’. ‘조선불교청년회의 일요학교’(22호, pp.68-69, 「회보」) 조선불교청년회는 1920년 창립된 이후 전국사찰에 지회의 조직을 두고 일제의 사찰정책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교분립을 주창하면서 사찰령 철폐운동 등 불교혁신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조선불교선종양종승려대회와 총본산건설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등 불교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김광식(1996b), p.192-193 인용)
- 21) ‘일본에 조선불교유학생학우회’(22호, p.69, 「회보」)
- 22) 윤기엽(2017)은 불교진흥회와 불교옹호회를 계승한 기관이 조선불교단(1925년 출범)이라는 논지를 전개했다. 이는 친일본자의 임원이라는 외적 현상을 기준으로

『조선불교총보』는 조선불교회, 불교청년회 출범 소식과 강령 등을 적극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단체의 태동을 견인한 의의가 있다. 『조선불교총보』는 새로 등장하는 불교청년들²³⁾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수용하는 장으로 발전하기에는 조직, 체제, 구성, 문체, 문화감각 등 여러 면에서 적합하지 않았다. 삼십본산연합사무소가 해체를 예고하고, 불교옹호회라는 우호 단체는 무화되고 교계 혁신을 주창하는 조선불교회 결성을 추동하면서 잡지의 종간은 당연한 수순이 되었다.

本報는 매월 간행하는 바 금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四五朔을 간행치 못하였사오니 유감천만이며 兼하여 今般 삼십본산연합사무소 제십회 총회한 결과, 삼십본산연합사무소를 삼십본산선교양종중무원으로 개정하고 본 叢報 亦 제이십이호로 終을 告하고 今後부터는 宗報로 개명하여 간행하겠사오니 독자제군은 양해하여 주심을 懇함.²⁴⁾

인용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1920년 5월 이후 연말까지 잡지를 간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하였다. 동시에 삼십본산연합사무소가 삼십본산선교양종중무원으로 개정되어 연합사무소의 기관지인 『조선불교총보』는 더이상 간행하지 않으며, 『종보』로 명의를 바꾸어 간행한다는 종간의 변이 담겨있다. 『종보』는 삼십본산선교양종중무원의 기관지로서 행정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로 그 역할을 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보』가 발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의 경과를 토대로 잡지와 관련 기관의 현황을 소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파악한 결과다. 불교옹호회를 극복하고 대체한 기관으로 조선불교회가 출범한 사실은 잡지 내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으로 본고에서 처음 밝혀지는 것이다.

23) 이 시기 신진 불교청년의 등장에 대해서는 이경순, 「불교청년의 탄생:1910년대 불교청년의 성장과 담론의 형성」(『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6권,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7)에서 자세히 고찰하였다.

24) 22호, p.70, <社告>.

<표 1> 1915-1921년도 불교계 기관지의 현황

연 도	1915.3~12	1916.4~6	1917.3~	1918~	1919~	1920~ 1921.1	1921.2~
잡지명	불교진흥회 월보	조선불교계	조선불교총보				종보
발행소 (판권장)	불교진흥회 본부	불교진흥회 본부	삼십본산연합사무소				미확인
포교 단체	불교진흥회 (승속)	불교진흥회 (거사)	불교옹호회(귀족, 거사)				*(조선불교회- 거사, 불교청년)
종무행정 기관	선교양종 삼십본산연합사무소						삼십본산선교양 종 종무원
위원장	강대런	강대런	김구하	김구하	김용곡	강대런	

* 참고로 조선불교회는 종무원이나 종보와 관련이 없다.

III. 발행의 주체와 편집 방침

1. 발행의 주체 - 발행인과 주필(主筆)

이능화는 근대 비교종교학과 불교사학의 대가이자 『불교진흥회월보』, 『조선불교계』, 『조선불교총보』로 이어지는 기관지의 발행인으로서 1915년 3월부터 1922년 1월까지 교계 언론의 중심에 서 있다. 『조선불교총보』의 판권장을 보면 그는 ‘발행검편집인’으로서 창간호부터 중간호까지 일관되게 등장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창간호부터 10호까지는 이능화가 편집과 발행업무를 전담하였으나, 11호부터는 유학생 출신 불교청년들이 주필과 필진으로 유입되면서 약간의 내적 변화가 수반되었다.

일본 조동종대학에 유학한 불교청년 3인(이지광, 이훈성, 김정해)이 1918년 여름에 귀국한 것은 『조선불교총보』에 일종의 ‘사건’으로 부각되었으며, 잡지 집필진에도 변화를 수반하였다.²⁵⁾ 이들 중 이훈성과 김정해는 총보의 주필로 등장하

25) 이들은 유학생 시절부터 국내 잡지에 근대불교학 논설을 번역하고, 시론을 투고하여 국내 불교계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린 바 있다. 이지광, 「佛敎의 眞理와 人生의 價値」(『조선불교월보』 3호); 「中央學林期設에 對한야」(『불교진흥회월보』 5호); 「佛敎西漸의 兆」(번역, 『조선불교월보』 18호); 이훈성, 「擎讀佛敎振興會月報

기 때문에 발행의 주체로 포함시킬 수 있다.

총보 11호에는 불교유학생 3인의 환영 기사와 동정보도가 주요 내용을 이룰 정도로 이들에 대해 당시 불교계가 가지는 기대가 매우 높았다. 첫 번째 기사는 道俗一同의 「曹洞大學을 졸업한 三氏를 환영함」이라는 기사다.²⁶⁾ “건봉사의 이지광, 용주사의 김정해, 유점사의 이혼성 三氏는 大正 2년(1913) 경에 東京府 下荏原郡 駒澤村 曹洞宗大學에 입학하여 본년 즉 大正 7년(1918) 夏期에 동 대학을 졸업하고 三氏는 同車聯袂하여 京城에 還着한다”로 시작하여 그들이 현금의 시대에 필요한 학문인 불교철학, 불교심리학, 불교윤리학을 공부했으며 앞으로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각황교당의 환영회 참석인사와 강연 내용까지 소개하였다. 당시 불교계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7월 9일에는 총독부에 들어가 우좌미(宇佐美) 내무부장관 등을 방문하였고, 중앙학림에서는 학교로 초청하여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그밖에 건봉사, 유점사, 흥천사, 봉은사와 삼십본산연합사무소에서 각각 성대한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는 소식이 같은 호의 「회보」에 상세히 소개되었다.²⁷⁾

환영은 행사로 그치지 않았다. 귀국 직후 건봉사의 이지광은 중앙학림 교원으로, 유점사의 이혼성은 『조선불교총보』 주필로 임명되었고, 용주사의 김정해는 ‘중앙기관에 결원이 없는 관계로 당분간 용주사 범무의 직에 취임’하였다.²⁸⁾ 그리고 이혼성이 주필로 입사했다는 사실은 같은 호의 「사고(社告)」에도 공지되었다.²⁹⁾ 이 ‘주필(主筆)’이란 직제는 기존 불교계 잡지에 없던 것으로, 교계의 기대를 반영한 특별대우를 한 것이다.

같은 해 10월 이혼성은 중앙학림의 요감(寮監)으로, 이지광은 교원으로 부임하였다.(12호 「회보」) 그럼에도 12호의 「사고」란에는 기고를 할 때는 본사 내 이혼성에게 보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어 중앙학림 학감과 총보의 주필 업무를 당

하고 有感하여」(『불교진흥회월보』 3호); 「唯我法侶同胞는 人民에 對함 布教傳道를 罔夜是務히심을 忠告함」(『조선불교월보』 6호); 「佛敎와 我邦建築」(번역, 『해동불보』 8호); 김정해, 「佛敎振興의 利用을 論함」(『불교진흥회월보』 5호); 「佛敎振興의 機運-佛敎青年에 寄함」(『조선불교계』 2호) 등이다.

26) 총보 11호, pp.1-4.

27) 총보 11호, pp.52-54.

28) 총보 11호, p.53.

29) 총보 11호, p.55.

분간 병행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⁰⁾

1919년 1월 2일에는 전례에 따라 각황사에서 삼십본산연합사무소 제8회 총회를 개최하여 연합사무소 위원장을 선거한 결과 범어사 주지 김용곡 화상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³¹⁾ 동시에 상치원(常置員)으로 이회광, 김구하, 강대련, 김일운, 송중현, 김상숙, 이지영이 피선되었고, 감사원은 박보봉, 광법경, 이철허 등이 당선되었다. 연합사무소 직원으로는 재무장 김상숙이 사직한 자리에 본사 주필 이혼성이 피임되었고, 본사주필 이혼성이 사임한 자리에 용주사 감사 김정해가 피임되었다.³²⁾ 이로써 조동종대학 졸업생 이혼성은 11호부터 13호까지 주필을 담당하였고, 14호부터 (중간호까지)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함께 귀국한 김정해가 뒤를 이어 주필 업무를 담당하였다.³³⁾

이들만큼은 아니지만 이듬해에 귀국한 불교유학생 역시 불교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총보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수반하였다.

敎界의 滯滯를 개탄하고 立志出郷하야 東京에서 五六星霜을 喫苦하던 大본산 통도사 유학생 이종친, 大본산 해인사 유학생 김영주, 조학유 3군은 형설의 業을 昇하고 本月 초순에 歸省하얏다더라.³⁴⁾

통도사 출신인 이종친, 해인사 출신인 김영주와 조학유가 1919년 5월 귀국하

30) 총보 12호, p.56. 참고로 13호의 앞면 광고인 <恭賀新年> 명단에는 ‘조선불교총보사’ 임원이 소개되어 있다. △연합사무소직원 - 30본산연합사무소위원장 김구하/동 재무장 김상숙/ 동 포교사 김경운/ 監院 최용식/ 서기 최병호. △조선불교총보사 직원 - 편집 이능화/주필 이혼성. △사립불교중앙학림교직원-학장 김구하/학감 이고경/요감 이혼성/교원 박한영 이지광 山口德乘 이광중 津隈亮 工藤順一 이명철.

31) 이능화, 「금일 조선불교의 대표자된 김용곡 선사여」, 14호, pp.2-14; 14호의 「회보」, 「三十本山住持總會」, 「委員長의 就任式」, 「新舊委員長의 送迎」 조(이상 p.53) 참조.

32) 14호의 「회보」, 「常置員及監事員의 改選」과 「聯合事務所職員의 移動」(이상 p.54) 및 「社告」, p.57 참조.

33) 김정해는 1919년 4월 學監 이고경의 자리를 대신하여 중앙학림의 교직원으로 부임하였다. 김정해가 맡은 학감 자리는 다시 이지광이 맡게 된다.(18호, 「회보」, p.71)

34) 15호, 「회보」, pp.100-101, ‘佛敎留學生卒業歸省’ 조.

였다. 이들은 전년도 귀국한 유학생에 비해 불교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직입하지는 못했지만 귀국 전이나 후에 총보에 근대불교학의 내용과 방법론을 적용한 글을 투고하여 근대불교의 형성에 자양분을 제공하였다.³⁵⁾

2. 필진의 변동과 편집 방침

『조선불교총보』에는 지향하는 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일종의 관행적 편집 경향을 보여준다. 잡지를 구독할 독자층의 분석이나 적극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고, 그 잡지만의 독창적 성격을 강조하는 언사도 문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앞선 두 잡지에서처럼 이능화가 편집 겸 발행인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관습적으로 유지해 간 것이 분명하다.

『조선불교총보』의 주요 논설진, 즉 삼십본산연합사무소 위원장에서부터 잡지의 발행인, 주필 및 유학생 투고 그룹에 이르기까지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포교와 교육의 새로운 모색이다.

『조선불교총보』가 지향하는 포교와 교육이라는 큰 주제는 시대마다 불교계가 안고 있는 숙명적인 사명일 것인데, 총보에서 기존의 지식인과 신진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이력에 맞게 시대 정신을 구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나는 기존 석학들의 조선불교사의 탐구요, 다른 하나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1세대 유학과 불교청년의 근대불교학 지식 소개다.

이는 잡지 전, 후반기 필진의 분포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1-8호는 이능화가 첫 번째 논설을 쓰며 전체 방향을 이끌어 가고 권상로가 이를 받쳐주는 양상이라면, 10호부터는 이능화의 역할이 현격히 줄어든 채, 이지광 이혼성 김정해 이종찬 김영주 조학유 정황진 등 일본유학생의 투고가 급격히 늘는 경향이 있다.

조선불교사 탐색을 주도한 이는, 일본인 학자와 유학생도 일부 포함되나, 전통적 지식인이라할 박한영 최동식 이능화가 중심이 된다. 잡지 후반기에는 유학을

35) 한편 1919년 7월 상순에는 주지 정기룡 선사의 사제로 혈혈단신 일본에 유학하여 6년을 고생하던 정황진이 귀국하였다는 기사가 소개되었다.(16호, 「휘보」, pp.70-71, ‘朝鮮僧侶의 模範的人物’, ‘佛敎留學生歸省’ 조 참조). 정황진은 기존 유학생과 달리 문헌 실증적 방식으로 신라불교사를 연구하여 새로운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근대불교학 성립기에 남다른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다녀온 불교청년들의 종교학, 불교학이 유입되며 나뉘대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1918년에 귀국한 후 주필로 등장한 이혼성(11호 이후), 김정해(14호 이후)는 잡지의 성격 변화를 주도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외 불교학은 해외 유학생이 귀국하기 시작한 1918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8호(1918.3)에는 정황진, 김영주, 김정해의 단편적인 글이 등장하고, 9호(1918.5)에는 이지광, 이혼성, 김정해, 이종천, 조학유의 연재물이 등장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변화의 기점인 8, 9호 및 이혼성 김정해가 주필로 등장하는 첫 호를 샘플로 필자의 분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선불교총보』의 필진 분포 (留:귀국유학생. 필자 미상은 제외)

1호	2호	8호	9호	12호	15호
이능화	김구하	이능화	최동식	이혼성(留)	김정해(留)
이능화	김상천	강대런	이능화	최동식	박역산
김상천	성훈	정황진/역(留)	김일우(운고)	기자	김정해(留)
이능화	이지광(留)	김영주(留)	김일우(운고)	김영주(留)	조학유(留)
이능화	이능화	김정해(留)	김일우(운고)	이지광(留)	정황진(留)
권상로	이능화	최동식/찬	이지광(留)	이혼성(留)	김창운
권상로	권상로		이혼성(留)	정황진(留)	도변창(日人)
이능화			이종천(留)	조학유(留)	박한영
			김정해(철우(留))	이종천(留)	
			조학유(留)	최남선	

이 시기에 귀국한 불교 유학생은 유학 시기 대학과 일본 근대잡지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을 소개하여 이땅에 근대불교(학) 지(知)의 세계를 확장한 성과를 거두었다.³⁶⁾

『조선불교총보』는 기본적으로는 일제의 사찰령과 사찰령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된 삼십본산연합사무소의 기관지다. 본사와 말사의 주지 임면 소식, 사찰재산 관련 내용, 기타 행정정보를 전달하는 공적 매체이자, 총독부 관리들과의 접촉 기사와 총독부의 종교정책을 불교계에 여과 없이 전달하는 정치적 매체라는 성

36)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귀국과 함께 종단과 중앙학림, 또는 사찰의 주요 보직을 맡게 된 이후에는 기대하는 만큼의 학문적 진보를 보여주지 못하였고, 혁신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격도 가지고 있다. 매년 1월 초에 개최되는 삼십본산연합사무소의 총회 소식, 매년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담화, 위원장의 동정 보도 등은 연합사무소의 기관지로서 충실한 보도 자세를 보여준다.

『조선불교총보』는 다양한 학술, 문화 담론이 담겨있는 종합잡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다.³⁷⁾ 그러나 총보는 기존잡지와 비교할 때 체제와 내용만이 아니라 표지 디자인, 문체 등에서 상당히 고답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1910년대 등장한 기존잡지처럼 문학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대중성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모색은 보이지 않는다.³⁸⁾ 총보는 1910년대 초반의 잡지에 비해서도 현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퇴보한 고답적인 잡지가 되었다.³⁹⁾

매호 판권란의 ‘주의(注意)’ 사항에는 『조선불교계』와 동일한 내용이 일관되게 등장한다. 그중 제5항은 정치적 이야기와 시사에 관한 시비를 담은 내용은 게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⁴⁰⁾ 제도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으며, 잡지의 활력은 이로 인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⁴¹⁾

본사를 사랑하고 애독하시는 僉彦은 노력을 不顧하시고 時事政談에 干與치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寄稿를 다수히 記送하야 본보의 면목을 일층 참신케 衿심을 切望 하오며 又는 전일에 송부하신 기고는 出版許可의 순서에 依하야 次號에 기재하깃스오니 諒存하시고 未完하신 분은 完결문을 卽送하야주시옵. 편집소 백.⁴²⁾

37) 김광식(1996a)은 “잡지의 편집원칙은 30본산연합사무소의 설립 취지가 불교의 ‘홍학’과 ‘포교’였기에 자연 편집의 기준도 그에 준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편집의 구성 원칙은 정하여지지 않았으나 교리, 사상, 사적, 사찰소개, 문예, 관보, 휘보 등을 담으면서 30본산연합사무소의 제반활동을 전하였던 불교 종합잡지”라고 규정하였다.(p.26)

38) 표지는 미적 고려 없는 단색 표지에 글씨만 인쇄하였고, 문체는 여전히 국한문 혼용의 고답적 문체가 지배적이다.

39) 이는 역사연구가이자 종교사학자인 이능화 자신의 역량의 한계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판문화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위축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다.

40) “본보에 투고코져 하시는 제씨는 政治移談과 時事得失을 除한 외에는 본보 목차에 의하야 隨意寄稿 하시되 매월 15일 爲限하고 주소씨명을 詳記送交하심을 要함. 단 記,停,評의 권한은 本所에 自在함”(매 호의 注意사항)

41) 이 자리를 대신한 것은 전계한 대로 이능화의 역사자료 발굴과 유학생 출신의 불교학 지식의 소개, 그리고 당국과 연합사무소 대표들의 시론 등이다.

42) 17호, pp.59-60, 「社告」.

본보는 매월 1회式 발행이온바 출판허가의 관계에 의호야 매월 간행치 못호오니 독자침위는 諒焉호시읍.⁴³⁾

3.1운동 이후 발간된 17호에는 「사고」란을 통해 시사정답과 관련된 기사는 투고하지 말라는 주문과 함께 기고문은 ‘출판허가의 순서’에 따라 게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20호의 「사고」에는 매월 발행하지 못하는 이유로 ‘출판허가의 관계’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잡지가 발행되던 시기에 일어난 1919년 3월 만세운동에 대한 잡지의 논조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었다.⁴⁴⁾

『조선불교총보』는 근본적으로 당시 현실의 여러 측면과 시국에 대한 피압박 민족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려웠고, 일제의 사찰령과 시행규칙을 준수하는 일방향의 주장을 담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는 『조선불교총보』의 이전이나 이후에 등장하는 잡지에도 일정하게 작용하는 외적 기제임은 분명한데, 총보가 발간된 시기의 특수성, 잡지 전체의 고답적 분위기로 인해 그러한 측면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IV. 시론의 지향과 특징

『조선불교총보』는 이능화가 발행한 직전의 『불교진흥회월보』, 『조선불교계』와 달리 편목의 구분 없이 매 호 약 10편 정도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⁴⁵⁾ 이들은 내용상 ‘논설-학술-역사자료-불교 상식’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 논설에는 시론이

43) 20호, p.62, 「社告」

44) 삼십본산연합사무소 위원장 김용곡은 3.1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노정하며 불교의 근본 목적을 강조하며 불도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고, (16호, 김용곡, p.1, 「警告法侶」) 중앙학림에서는 ‘소요’ 이후 ‘허다한 곤란’에 처한 교직원들을 위로하는 만찬연을 개최하였다. (20호, p.61, 「회보」 ‘中央學林敎職員慰勞宴’)

45) 『불교진흥회월보』는 1호부터 중간호까지 일관된 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즉 「논설(論說)-교리(敎理)-사전(史傳)-학술(學術)-문예(文藝)-잡조(雜俎)-소설(小說)-회록(會錄)·관보(官報)·회보(彙報)」의 순이다. 이는 『조선불교월보』와 『해동불보』에 등장한 편제를 개선하여 활용한 것이다. (김종진(2021a), p.438)

포함되며, 학술에는 교리와 연구가 포함된다. 문화와 문학 관련 글은 앞선 잡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산발적이다. 일정하지는 않지만 서두에는 시사성 있는 논설(시론)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시론은 잡지 간행의 주체, 즉 편집인과 주필이 작성하는 사이사이에 삼십본산연합사무소 위원장, 중앙불전 교수 박한영, 그리고 유학생 출신 인사가 일부 작성하였다. 잡지 전체에서 시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글을 인물별로 제시하고 그 경향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조선불교총보』의 시론 목록(인물별)

호수	면수	필명	대표명	제목	비고
1호	1	尙玄	이능화	朝鮮佛敎叢報 發刊詞	시론(발간사)
1호	2	無能	이능화	聯合事務의 第三個年	시론(연합사무소)
3호	1	尙玄居士	이능화	佛敎普及은 精神과 形式이 並行然後	시론(포교)
6호	1	李能和	이능화	内地에 佛敎視察團을 送함	시론(일본시찰)
14호	11	尙玄居士	이능화	今日朝鮮佛敎의 대표자 된 金龍谷禪師여	시론(불교옹호회 이사 자격, 김용곡 업적 소개)
16호	2	尙玄居士	이능화	堂獄布敎說	교양(지옥천당설)
17호	1	尙玄居士	이능화	如是觀	교양(세계관, 사회관)
4호	22	姜大蓮	강대련	佛敎擁護會와 法侶覺悟	시론(불교옹호회)
8호	4	姜大蓮	강대련	楓岳楡岾寺와 柳京布敎堂	포교(포교당)
20호	1	姜大蓮	강대련	佛敎機關擴張意見書	교육, 포교, 사찰운영 방안
2호	1	金九河	김구하	謹告諸方	시론
6호	5	金九河	김구하	吾敎青年學生諸君의게 中央學林學生에 對한	시론(청년)
11호	4	學長金九河	김구하	訓示	시론(중앙학림)
14호	5	金龍谷	김용곡	右에 對하야 三十本山委員長 金龍谷 和尚의 答辭	시론(내무부장관 답사)
16호	1	金龍谷	김용곡	警告法侶	3.1운동의 소요 불교계 부정적 활동 지적
18호	1	寓林生	박한영	佛敎青年에 對하야	시론(불교청년)
6호	18	退耕沙門	권상로	近代佛敎의 三世觀	시론(불교계의 과거현재미래 전망)
12호	1	李混惺	이혼성	佛敎와 人生의 目的	교양
15호	1	竹軒金晶海	김정해	宗教의 新意義①	시론(종교론)
16호	8	竹軒金晶海	김정해	宗教의 新意義②	시론(종교론)

17호	11	竹軒金晶海	김정해	宗教의 新意義③	시론(종교론)
18호	8	竹軒金晶海	김정해	大乘의 佛敎精神을 振興	교양
19호	3	竹軒金晶海	김정해	具體的인 聯合制度의 必要를 論함	시론(30본산연합제도)
21호	1	金晶海	김정해	宗教는 自由의 宗教	시론(종교론)
14호	20	伽倻山人 崔觀洙	최관수	敎育에 就하야	시론(교육론)

1. 일제 시책의 구현 - 발행인, 연합사무소 위원장의 정치 행보

이능화는 총보의 편집 겸 발행인으로서 창간호와 3호에 잡지의 방향을 정립하는 논설을 작성했다. 그리고 불교옹호회 이사이자 기관지의 발행인으로서 일본 불교 시찰단 기사와 제3기 신입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논설을 게재하였다.⁴⁶⁾

이능화의 「내지에 불교시찰단을 송함」(1917.6)은 총독부가 제정 반포한 사찰령에 따라 선교양종삼십본산에서 각 사찰의 사법을 제정하고, 연합기관을 세워 통일적인 중무를 처리하게 되었으며, 중앙학림을 설립하여 불학을 교수하며, 잡지를 간행하여 중지를 천양하고 있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소개하였다. 본문에서 불교시찰단을 파견하는 목적은 오직 ‘시세의 변천을 따르며, 풍조(風潮)의 대동(大同)을 반(伴)하여 제도를 관찰하고 문물을 참호(參互)코자 함’이 유일한 목적이라 하였고, ‘메이지천황 룹에 참배하여 근역(楨域)의 불법을 외호한 심은(深恩)을 보사(報謝)함’을 최초의 동기라고 소개하였다.⁴⁷⁾⁴⁸⁾

46) 「内地에 佛敎視察團을 送함」(6호, pp.1-4); 「今日朝鮮佛敎의 대표자 된 金龍谷禪師여」(14호, 11-15). 이를 제외한 글 대부분은 역사사료 발굴 소개가 중심이 된다.

47) 시찰단은 1917년 5월 31일 경성 남대문역에서 출발하였는데, 삼십본산연합사무소 위원장인 김구하를 비롯, 이회광, 강대련, 나청호, 광법경, 김용곡, 이지구, 김상숙, 그리고 ‘조선불교총보 기자’로 권상로가 포함되었다. 권상로가 조선불교총보사의 기자로 발령난 사실은 잡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협력 기자로 활동했을 가능성도 있고, 시찰단의 일원으로 갈 때 기자로 위촉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48) 출발 당시 총독의 축사가 있었고, 총독부 관리, 이완용은 물론 중앙학림 교수 박한영, 범어사 포교사 한용운, 중앙학림 학도 일동 등이 환송에 나섰다라는 사실을 보도하고, 천황과 이능화 자신의 인연을 담담하게 서술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인 사실의 기록이 일제의 종교시책을 앞서 소개하는 결과가 된 것은 이능

역대 삼십본산연합사무소의 위원장은 강대련(1915, 1916), 김구하(1917, 1918), 김용곡(1919), 강대련(1920)이다. 총보가 발행되던 기간에 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이들은 재임하던 시기에 각각 논설을 게재하였는데, 총독부와 불교계의 매개 역할을 담당한 위원장으로서 이들의 글에는 총독부의 입장을 견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강대련의 「佛敎擁護會와 法侶覺悟」(4호), 「佛敎機關擴張 意見書」(20호), 김구하의 「謹告諸方」(2호), 「吾敎靑年學生諸君의게」(6호), 「中央學林學生에 對한 訓示」(11호), 김용곡의 「警告法侶」(16호)는, 포교와 교육의 근대적 전개 방안에 대한 나름의 해안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전체적으로 불교계에 대한 정치적 억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⁴⁹⁾

3.1운동 직전에 간행된 14호(1919.2)에는 그해 1월 6일 삼십본산연합사무소에서 개최한 삼십본산 주지회의에서 행한 총독부 내무부장관 우좌미(宇佐美)의 ‘훈유(訓諭)’와 위원장인 김용곡의 답사가 수록되어 있다.

‘훈유’에서 그는 제1차 세계대전(1914.7-1918.11)에 연합군 일원으로 참여한 일본이 승전한 후 새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면서 조선과 조선인의 역할(금전 출연)을 강조하고, 사찰의 운영, 교육, 포교 방면에서도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무임을 강조하였다.⁵⁰⁾ 이에 대해 위원장 김용곡은 ‘훈유’를 잘 받들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겠다는 내용의 답사를 하였다.⁵¹⁾

김용곡의 「경고법려」(16호, 1919.7)는 3.1운동으로 촉발된 불교계 저항의 움직임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압제하고자 하는 일제의 입장이 여과 없이 반영한 시론이다. 논설은 ‘지난번의 소요사건(3.1운동)으로 인해 전 민족의 사상계가 동요되어 불교계에까지 영향이 미쳤고, 종교인의 본분을 스스로 잃는 자가 많아 크게 유감’이라는 서두로 시작하여 ‘치안을 방해하며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일부 청년의 망상과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종교인의 본분을 잃지 않기를 당부하였다.⁵²⁾

『조선불교총보』는 3.1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917년 3월 창간되었고, 그 2

화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대의 한계라 하겠다.

49) 14호와 19호에는 우좌미(내무부장관)의 훈유, 김용곡의 답사(14호) 및 학무국장의 연설(19호)이 게재되어 있다. 일제의 정치적 영향력이 깊게 내재된 양상이다.

50) 기자 譯, 「宇佐美內務部長官의 訓諭概要」 4호, pp.1-5.

51) 「三十本山委員長金龍谷和尚의 答辭」 4호, p.5.

52) 「警告法侶」 16호, pp.1-2.

년 후인 1921년 1월에 종간되었다. 일제 치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민족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난 전례 없는 격변의 시기를 체험하면서도, 총보의 논조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잡지의 출발 자체가 총독부가 제정한 사찰령과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삼십본산제도가 운영된 것이고 그 기관의 기관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라 할 수 있다.

2. 당대 불교학을 바라보는 두 시각 - 박한영과 김정해

시론의 작성자 중 『조선불교총보』 발행인과 삼십본산연합사무소 위원장을 제외하면 중앙학림 교수인 박한영과 유학생 출신 주필 김정해의 글이 주목된다.⁵³⁾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상대 세대의 불교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박한영은 우림생(寓林生)이라는 필명으로 「佛敎靑年에 對하야」(18호)를 발표하였다. 이는 새로 유입된 불교유학생들의 학문적 성과와 경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학생들에게 ‘정면으로 교과를 연구’할 것을 당부한 논설이다.

해외에서 다년 유학하고 故園에 返車한 재군은 청년중 翹楚者라 우리 輩는 其人의 文明法雨가 일반교도에 遐霑하기를 向日 旱天에 農夫望靑과 相似하얏드니 다른 청년의 소회만 응하야 그러헌지 아즉도 분위되는 雨澤은 不蒙하고 先히 개방하는 異彩만 或顯하니 우리 輩는 실망하는 즉시에 청년 재군은 彈冠相賀하겠지오.(p.2)

여보 불교청년 재군이여 종교학이 철학과를 강구치 안하얏쇼 모든 종교건설의 本意와 동서철학의 定義를 대개 인득하얏지오 그것을 광범히 有讀할것이 不是라 他의 종교와 철학의 개요를 觀破하야 우리 종교 及 철학의 방안을 개척 及 裨補하즈는 主見이어늘 만일 우리 敎與學은 不管하고 他敎與學을 전람회와 갖치 너갓다든지 本敎學은 祧遷하고 自己所宗을 他敎學으로 傾仰하든지 又は 無宗敎 蔑學理로 放任自恣하야 자기의 지금 위치가 어느 界線에 立在를 茫昧한 것은 자기의 暮暮朝朝의 행위를 점검하면 可知하리니(p.3)

53) 이훈성과 김정해는 유학생 출신으로서 잡지의 주필로 임명받은 시기에 첫 지면을 할애 받았다. 이훈성은 주필로서 별다른 시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교양 수준의 불교지식을 소개하고 있다.

박한영은 전통시대 강맥을 계승한 대 강백이자 중앙학림의 교수로서, 10년대부터 2, 30년대에 불교청년들의 학문을 이끌고, 정신적 측면에서도 좌장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해동불보』를 발행하며 다양한 불교사 자료 발굴을 이끌기도 하였는데, 『조선불교총보』에서는 특정한 역할을 맡지 않았지만, 이능화의 불교사 탐구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당시 불교청년 세대의 좌장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인용문에서 박한영은 유학생의 학문이 박람회에서 물품 진열하듯 해외 학술을 무분별하게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우리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연구하는 실력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학생들이 『조선불교총보』에 발표한 여러 편의 글도 개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감이 있는데, 박한영의 글은 이를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한영의 비판에 직접 대응한 것은 아니지만, 유학생으로 종단의 요직에 직입했던 김정해는 「具體의 聯合制度의 必要를 論함」(19호)에서 당시 조선의 불교학 수준에 대한 시각을 드러내었다.

근세에 불교연구는 동양학자뿐만 아니라 歐洲에 就호야도 각 학자가 불교연구를 성대히 호는 바는 諸氏 亦 熟知호는 바며 散克利語의 연구, 巴利語의 연구, 불교에 관한 미술품을 발굴, 原典의 연구, 기타 여러 가지 연구로써 獨逸, 佛國, 英國, 露國의 諸東洋學者係는 다 甚深호 연구로써 堂堂호 大名을 세계에 揚호미라. 연호디 我朝鮮은 소위 신지식을 청년에 教授호는 地方學林及中央學林의 不振不完全호는 前 述호과 如호거니와 각 사찰에 소위 專門講院이라고 잇스나 中間註釋家의 연구를 배정호야 그의 糟粕만 嘗호는 者거는 不然호면 다못 訓詁註釋을 是事호니 소위 活字引의 類에 불과호니 此二三의 예의를 除호고 誰가 능히 新智慧로써 연구호야 脫線의 견해를 得호앗다 단언호리요.(p.3)

논자가 연합제도 하 교육기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세계 불교연구의 동향을 소개한 글의 일부이다. 근대 교육기관으로서 지방학림과 중앙학림이 있으나 아직 그 존재와 수준이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있고, 각 사찰의 전통적인 전문 강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은 전통적인 사기(私記), 즉 경문에 대한 선학의 훈고학적 주석서를 읽고 해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은 세계 불교학의 조류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박한영과 김정해의 시각을 비교해 보면, 박한영은 유학생들이 백화점에서 물

품 나열하듯 해외의 지식을 증개할 뿐으로 자기 자신의 연찬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있고, 김정해는 한두 가지의 예를 제외하면 근대적이거나 전통적인 조선의 교육기관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고, 또 있더라도 교과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기에 세계 불교학술 조류와 차이가 큼을 비판하고 있다. 『조선불교총보』에는 이처럼 전통 지식인과 신진 유학생 사이에 있는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⁵⁴⁾

유학생 출신 김정해는 15호부터 주필로 등장하는데, 시론을 통해 종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삼십본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宗教的 新意義」에서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종교는 돌파’라는 다소 파격적인 표현으로 종교의 의의를 제기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즉상(卽相)과 돌파’, ‘경제상의 돌파’, ‘법률상의 돌파’(15호), ‘도덕상의 돌파’, ‘국민생활상의 돌파’(16호), ‘정신상의 돌파’, ‘이중인격을 돌파’(17호)로 나누어 일본에서의 체험을 반영하고 현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실천적 종교관을 전개하였다.

「具體的 聯合制度의 必要를 論함」(19호)에서는 현재의 삼십본산연합 체제가 완전한 연합제도를 이루려면 중앙정권의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완전한 연합교육기관을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육기관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기독교와 대비되는 불교포교의 현실 역시 교육기관의 개선을 해결의 첫걸음으로 제기하였다. 본사 주지들의 회동에서는 각 본산마다 설치한 전문강원, 지방학림이 비용과 설비의 비효율성을 절감하며 연합교육기관의 건설에 동의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宗教는 自由의 宗教」(21호)에서는 불교는 승려만의 종교도, 민중들만의 종교도 아니라는 점, 그리고 불교는 자유를 제일 존중하는 종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재 조선사찰은 삼십본산 휘하에 각본산 수반지(首班地)가 있고 밑으로 방등지(方等地)가 있으며, 사격(寺格)으로 보면 본사, 말사, 손사(孫寺)의 3종이 있

54) 유학생 자신들이 해외 불교학의 수준에 상응하는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아직 연구 경력이 일천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제언은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기하는 정도의 의의를 갖는다. 1918년에 귀국한 3인이 잡지의 주필 등 영향력 있는 자리에 직입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학술 문화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인색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는데, 각 말사에서는 불미한 여러 현상이 발생하여 수행도량으로서의 모습이 사라진 혼란한 상황을 지적하고(p.3), 그 해결방안으로 승려만의 종교에서 신자의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조선불교회를 조직하여 유식계급의 제 인사를 망라하여 조선불교를 발전하여 조선의 불교를 세계에 소개하며 조선 인민의 사상계를 구제코자 하니, 회원인 제 신사(信士)는 더욱 발전에 주의할 것이며, 승려인 우리 법려는 열렬한 혈성으로 원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p.4)⁵⁵⁾ 총보의 주필인 김정해는 새로운 불교지식인의 결사단체인 ‘조선불교회’의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이러한 불교청년의 부상하는 목소리는 점차 세력화하여 조선불교회와 조선불교청년회의 출범으로 이어진다. 총보의 후반부에 드러나는 개혁을 갈구하는 청년들이 1920대와 30년대를 거치면서 불교잡지 발행의 주역으로 성장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 그 의의가 적지 않다.

V. 잡지의 위상과 의의 - 결론을 대신하여

1910년대 중반 이후 20년대 초까지 삼십본산연합사무소가 운영한 기관지로 『불교진흥회월보』, 『조선불교계』, 『조선불교총보』가 있다. 이능화가 발행인인 이들 잡지의 창간과 종간은 연합사무소와 밀접하게 연계된 포교단체의 부침과 관련이 있다. 삼십본산연합사무소가 잡지 간행의 토대가 되는 행정적 토대라면 실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불교계 지성 및 포교단체가 후원자 그룹으로 엄존했음을 알 수 있다.

삼십본산연합사무소가 3차년도를 시작하던 해 1917년, 친일 귀족이 포진한 불교옹호회가 결성되었고(2월) 이어 『조선불교총보』가 창간되었다.(3월) 총보를 중심에 놓고 보면, 삼십본산연합사무소는 잡지 발행의 행정 기관이며, 포교단체인 불교옹호회는 발행의 후원 단체로서, 두 기관은 본 잡지 간행의 기본 토대가 된다.

55) 김정해의 지론은 삼십본산연합이 행정적인 대표기관으로서 존재할 뿐이라는 것, 그리고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어 교육과 포교를 실천하며, 연구를 심화하여 세계에 조선의 불교를 소개하는 실천은 ‘승려계’에만 기댈 수 없고, 신사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옹호회는 1917년 10월에 가서야 제1회 임원회의[役員會]를 개최할 정도로 잡지 제작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 사이 『조선불교총보』는 6호까지 간행되었으며, 잡지 간행은 전적으로 이능화가 연합사무소의 업무로서 관장하였다. 물론 총보에 시국에 대한 일제 관료의 연설과 연합사무소 위원장의 시사적 발언이 여과 없이 수록되는 것을 보면, 총독부와 연합사무소의 행정력이 잡지의 제작과정에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이다.

가장 어두운 시대 억압된 분위기는 잡지의 체제와 내용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편제나 문체, 투고 내용에 있어 1912년 창간된 『조선불교월보』가 보여주었던 대중포교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변화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1918년 여름에 일본유학생이 속속 귀국하고 이들이 11호부터 실질적으로 잡지의 주요 필진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 불교학의 다양한 성과가 더 활발하게 지면에 소개되었다. 이지광, 이훈성, 김정해를 위시한 이들 유학생은 귀국하자마자 총독부, 연합사무소, 각 본사, 중앙학림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으며, 당시 종단권력이라 할 수 있는 요직에 발탁되면서 급속하게 보수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 3.1운동이 일어난 것은 잡지에 보이는 억압의 강도가 사실은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었음을 반증한다. 1919년 2월에 총보 14호가, 5월에 15호가 간행된 사이에 3.1운동이 발발하였다. 이 시기는 그동안 억눌렀던 혁신의 열망과 문화적 에너지가 사회 전반, 불교계에도 넘쳐났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철저하게 일제의 행정 권력의 간섭하에 간행된 잡지 지면에는 ‘소요’에 대한 우려와 검속의 메시지만 가득하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이 주는 억압의 무게와 기관지라는 잡지 자체의 성격으로 인해 총보가 확보한 자율적 영역은 매우 좁았다. 더하여 이능화의 진중한 학자적인 자세와 고답적인 문화 감각은 혁신적인 잡지를 기획하기에 어울리지 않았을 것이다. 회화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무채색의 표지, 고답적인 편제와 문체 등도 잡지 전체의 분위기를 지나치게 장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일반 독자의 참여가 매우 제한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불교옹호회가 출범하며 산출된 이 잡지는, 그러나 후반부에 조선불교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산출하는 공적 인큐베이터가 되었다. 민족문화 탐구에 앞장섰던 국학계 지성들과 새로운 유학생들이 결합한 새로운 단체가 『조선불교총보』를 통해 형성되어 새로운 혁신의 움직임에 예고하였다. 『조선불교총보』라는 거목은

창간되는 시점의 상황과 다르게 조선불교회, 조선불교청년회라는 새로운 싹을 피우면서 잡지 자체는 소멸의 길로 들어섰다. 총보는 1921년 1월 중단되었고, 삼십본산연합사무소의 기관지는 『종보』로 재탄생할 것을 예고하며 사라졌다.

총보 중단 이후 불교계의 잡지는 3년 정도의 공백기를 거치게 된다. 1924년 5월에 동경불교유학생의 학우회지인 『금강저』가 출현하고, 그해 7월 불교사 간행의 종합문화잡지 『불교』와 국학자 위주의 종합교양지 『불일』이 간행되기 전까지 불교 잡지는 공백기를 맞이하였다. 공백기에 응축되었던 청년의 잠재적인 힘은 『금강저』로,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일련의 응축된 힘은 『불교』와 『불일』을 통해 표출되었다. 『조선불교총보』 중단 이후 3년 4개월간의 공백기는 이들을 예비하는 단계에서 그 자체의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조선불교총보』

- 김광식,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해제』, 민족사, 1996a.
김광식, 『한국근대불교사연구』, 민족사, 1996b.
김성연, 「1910년대 불교 근대화론과 종교적 지평의 확대」, 『불교학연구』 48호, 불교학연구회, 2016.
김종진, 「『불교진흥회월보』의 전개와 문예 지면의 지향성」, 『문화와 융합』 43권 1호 (통권 77집),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a.
김종진, 「1910년대 불교잡지 『불교진흥회월보』의 학술 담론과 의의」, 『한마음연구』 6집, 대행선연구원, 2021b.
윤기엽, 「일제강점기 조선불교단의 연원과 사적 변천-조선불교단 임원진의 구성과 이력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7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이경순, 「불교청년의 탄생: 1910년대 불교청년의 성장과 담론의 형성」,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6권,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7.

Abstract

The Developmental Patterns and Orientation of the “Journal of Joseon Buddhism Collectanea”(朝鮮佛教叢報)

Kim, Jong-jin

(Professor of Academy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al patterns and orientation of the Buddhist magazine, the “Journal of Joseon Buddhism Collectanea” (Total 22 volumes, March 1917~January 1921). The “Journal of Joseon Buddhism Collectanea” is a paper published by the 30 axis temples association office, and is the only Buddhist magazine in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3.1(March 1st) Movement.

The “Journal of Joseon Buddhism Collectanea” started with direct and indirect connections with the Buddhist advocacy group (佛教擁護會), which pro Imperial Japanese people were in charge of, but in the latter half of the magazine, as it launched the Joseon Buddhist Association (朝鮮佛教會) and Buddhism Youth Association (佛教青年會), which included many Buddhist intellectuals at that time, it is notable that it became the birthplace of the new Buddhist movement. Here,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activities of cultural practice movements that were spontaneous in the Buddhist world after the 3.1 Movement were expressed through the magazine.

The “Journal of Joseon Buddhism Collectanea” is basically an academic liberal arts magazine that accumulated academic research results of Buddhist intellectuals centering on Lee Neung hwa. This study considered the orientation of the magazine as the first research on this magazine, focusing on contemporary opinions (時論), before examining academic achievements. Contemporary opinions revealed intact the political actions of the magazine publisher and the chairman of the association office. The conservative and reactionary voice contained in contemporary opinions is linked to the composition of the magazine itself and the conservatism of the style. This is the limit of Lee Neung hwa's conservative

cultural perception and sense, and is the result of the oppression of the times at the same time.

In the “Journal of Joseon Buddhism Collectanea”, the different perspectives of professor Park Han yeong of Jungang Hakrim who viewed Buddhism of the period and Buddhist students who returned from Imperial Japan studying abroad are exposed intact. New people from studying abroad, such as Kim Jeong hae, raised a new perspective on religions, and a new voice began, such as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the 30 axis temples (三十本山) system based on the temple decree (寺刹令)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general. Accordingly, in the latter half of the “Journal of Joseon Buddhism Collectanea”, the voices of Buddhist people who returned from Imperial Japan studying abroad occupied a greater proportion.

Through this, it was revealed that the “Journal of Joseon Buddhism Collectanea” is a complex text that reflects various characteristics,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the times faced by the Buddhist world in Joseon (Korea) between 1917 and 1921.

Key words

Buddhist magazine, modern Buddhism, Journal of Joseon Buddhism Collectanea, Buddhism Advocacy Association, Joseon Buddhist Association, Young Men's Buddhist Association, Lee Neung hwa, Park Han yeong, Kim Jeong hae